

국제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성과와 확산 전략

손 연 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I. 서론

독립국가연합에 속하는 벨로루시는 속속 친미화 경향을 보이는 다른 구 소련 국가들과 달리 유일하게 친러 성향을 보인 러시아의 우방국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벨로루시의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 독재체제를 비판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만큼은 벨로루시의 확실한 지원국이자 만형님으로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루카셴코의 3선을 공공연하게 지원했다. 또한 벨로루시에 대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값싸게 제공해왔다. 값싼 원유를 정제해 재판매함으로써 벨로루시는 연간 20억 달러의 수익을 얻어왔다. 이러한 벨로루시와 러시아의 밀월관계가 금이 간 것은 지난해부터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천연가스 가격을 2배 인상하고, 면세로 팔던 원유에도 1톤당 180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벨로루시를 거쳐 유럽으로 수송되는 가스와 원유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고, 애꿎은 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입었다. 유럽은 전체 가스 수입의 41%, 석유 수입의 38%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벨로루시는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에 즉각 대응해 원유 파이프라인 통과료로 1톤당 45달러를 징수하겠다는 보복조치를 선언했지만, 1월 10일 통과세를 철회하기로 백기를 들면서 분쟁은 싱겁게 끝났다. 벨로루시의 일방적 항복에 다툼 아니다.

러시아가 벨로루시에 가스와 원유 값을 올리는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국익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는 흡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벨로루시의 경우는 자

원을 갖지 못한 약소국의 설움을 잘 보여준다. 나름대로 강대국 러시아에 저항했지만 결국 나라의 운명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도 벨로루시와 같은 운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니, 지난 역사 속의 한반도는 이미 이러한 경험을 수차례 반복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지는 62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작금의 정세가 지난 구한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수중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의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와 일본의 압박은 우리의 미래를 점점 불안하게 만든다.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의 금자탑을 쌓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수 있을 것인가. 자원 대국들의 에너지 민족주의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은 물론 에너지마저 없는 우리의 외교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의 존경도 받으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는 끝없이 이어지기만 한다.

II. 본론

1. '존경 받는 열린 국가'를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제 · 민간경

제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은 지난해 8월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 진입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 경제를 국제표준에 맞는 개방경제로 전환하고 외국과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존경 받는 열린국가'의 구현으로 잡았다.

우선 민간작업단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존경 받는 열린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인정받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선진 통상국가를 향한 기반과 동북아 FTA 네트워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플랜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래 최대 경제국이 될 중국 사이에 위치해 글로벌 네트워크 추진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치열한 FTA 각축전이나 전 세계를 향한 물량공세의 실태를 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협공 속에 호두까기에 들어간 호두처럼 깨질 위기(넛 크래킹)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존경받는 국가라는 개념도 그렇다. 국제무대에서 선린우호관계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지원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급속한 정보화와 세계화는 각국의 실리 외교를 더욱 부채질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적 고래잡이를 금지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일본은 무려 십여 년 전부터 가난한 회원국에 수백만 달러를 원조해주고, 이들을 상업포경 찬성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40개국이던 회원국은 66개국으로 늘어났다. 98년 이후 일본의 전폭 지원으로 IWC에 진출한 국가만 19개국이다. 심지어 포경의 전통은 물론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내륙국가 몽골이나 말리 등도 회원국으로 끌어들었다. 이런 회원국의 투표성향은 일본과 거의 일치한다.

아프리카 초원 세렝게티에는 대형 포유류만 300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공원 자체가 여러 나라들의 지원으로 관리된다. 예를 들어 치타는 영국 왕실, 사자는 미국을 후원자로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은 초원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닦아 주었고, 독일은 공원 관리에 지난 50년 동안 매년 100만 유로를 지원해오고 있다.

동물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1992년부터 '삼림생태계 보전 프로젝트'(ECOFAC)를 추진해, 아마

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콩고 분지 230만km²의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3,800만 유로(약 460억 원)의 원조자금을 투자했다.

이들 선진국이 초원과 동물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에 대한 자각이 높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여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막대한 천연자원 확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많은 분야에서 생색을 낼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과연 세계에 존경받을만한 지원과 원조를 하고 있는지 냉엄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2005년 기준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7억 520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2004년 0.06%에서 크게 상승했다. 국민 한 사람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금액은 1만 5000원 꼴(15 달러)이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총소득 대비 ODA 규모가 갑자기 상승한 것은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에 따른 출연·출자금 납입(8,100만 달러)과 국제개발협회(IDA) 출자금 증액(4,400만 달러→1.2억 달러)에 따른 일종의 거품으로, 재경부는 올해 ODA/GNI가 0.08%대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현재 우리의 평균적 ODA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전문위원회 35개 중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의 평균 0.33%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은 ODA의 액수가 너무 적어 DAC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다. DAC는 대외원조를 주도하며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 가입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ODA가 국민총생산 대비 0.2% 이상이거나 원조 규모를 DAC 평균 비율로 확대하는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한국이 국민총소득(GNI) 세계 12위, 교역규모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는 가장 적게 하는 나라이며, 심지어 그리스나 터키 같은 나라의 원조액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게다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가.

지난해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됐다. 이는 오는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원조기금을 1억 달러로 늘

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출국자가 약 1300만 명에 달하므로, 1인당 1달러를 부가하면 연간 1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국내에서는 또 하나의 목적세 신설이라는 논란과, 국내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서 국제사회 원조를 위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반발이 일어났다.

우리 내부의 빈부격차 문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원조도 눈총을 받는 마당에 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의 국민 생활에 관심을 쏟아야 하느냐는 비판은 정당하고도 아주 자연적인 것이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국제 질서와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기도 하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만 한다. 특히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심한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ODA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에드워드 리드 미국 아시아재단의 한국지부 대표는 한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빈국에 대한 개발 협력을 더 늘려야 할 주요 이유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개도국들이야말로 한국이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과 자원공급지로서 점점 더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이유는,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도 개도국들 가운데서 새 우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장차 통일시대에 겪을 엄청난 변화를 감당하기 위한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다자적이고 광범위한 새 동반자 관계를 필요로 한다.

셋째로, 개도국들은 한국이 세계 속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걸맞은 지도적 역할을 맡기를 바란다.

넷째로, 한국만이 독특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

끝으로, 개발 협력은 호혜적인 것이다. 세계화 덕분에 한국은 더욱더 다문화적인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인류 사회·문화의 다양성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더 깊은 이해와 관용과 상호존중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문처럼 우리가 공적원조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중장기계획에서 GNI 대비 ODA의 목표치를 OECD 개발원조위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5조 원 가량을 투입해야 하는 등 재원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

아울러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지원 규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기는 어려운 듯하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답게 지원 수준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2. 디지털 외교가 정답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차별화된 ODA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는 높은, 우리만의 독특한 지원 방식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개도국에 줄 수 있는 독특한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한국이 과거 강대국처럼 식민주의의 빛을 지지 않은 선진국의 새얼굴이라는 매력일 수도 있고, 한류(韓流)의 뛰어난 창의성일 수도 있다.

동남아에서 드라마 '겨울연가'와 '대장금'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인 파급 효과는 ODA 금액의 수백 배가 넘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와 스타 위주의 한류는 연속성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또한 필수재가 아닌 대중문화라는 점에서 합리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매력은 우리의 '디지털 한류'다.

예를 들어 우리의 디지털 장비와 기술, 시스템이 없는 2006도하아시안게임은 상상할 수도 없다. 도하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동의 발전상을 세계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시안게임 뿐 아니라 올림픽을 겨냥한 첨단 IT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중동 IT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로 자신하는 이번 서비스의 기초를 한국 업체들이 맡은 것은 물론이다.

또한 중국이나 이란, 두바이,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국산 휴대폰 하나 갖는 것이 소

원인 젊은이들이 넘친다. 상당수 개도국에서 한국 광고판이 며 글자가 그대로 붙어 있는 버스나 자동차 등이 인기인 것은 이를 '디지털 한류'의 우수성 및 최고급 이미지와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디지털 기술·서비스·제품의 물질인 '디지털 한류'를 통한 디지털 외교는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의 방향을 알려준다. 비록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외교적 재원이나 인력 등에서 한참 밀리지만,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디지털 외교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단점을 극복해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미래전략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디지털로 하나 되는 희망한국' 비전 ACE IT전략을 선포하면서 실천 전략의 하나로 IT외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ACE IT전략은 급속한 고령화 및 세계 최저 출산율,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등 대내적 문제와 전 세계적인 FTA 추진,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 등 대외적 여건에 대응하는 정보기술(IT)의 역할을 재정립한 것이다. Advanced(앞서가는) IT, Convergent(융합하는) IT, Expanded(확산하는) IT 등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ACE IT는 우수한 IT 잠재력을 국가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 국가시스템을 혁신하는 전략이다.

이에는 UN이나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과의 IT 협력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도국의 교육이나 원격의료 및 인류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화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디지털 외교 혹은 IT 외교는 중국과 일본 등이 선불리 흉내 내지 못할 '한국형 지원 모델'이 될 수 있다. 원조액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강대국과는 어차피 비교가 안 되므로,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3. 한국형 모델 : 디지털 한류와 디지털 외교

국제연합(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지난해 7월 5일 디지털기회지수(DOI) 평가에서 세계 180개국 중 한국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정보사회 일등국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디지털기회지수(DOI·Digital Opportunity Index)는 정보통신 인프라 보급, 기회제공 및 활용도에 대한 11가지 지표를 이용해 한 나라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

내는 중요한 척도다. DOI는 지난 2005년 11월 튀니지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SIS)에서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결의된 평등한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도구로 공식 승인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DOI 국가별 순위는 지난해 40개국에서 전 세계 180개국으로 확대 평가되었는데, 일본은 한 단계 올라간 2위를 기록했고, 2위였던 홍콩은 5위로 세 단계 내려갔다. 또한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3위와 4위에 위치하여 아시아와 유럽국가가 상위 순위를 구성했다. 이처럼 10년 전만 해도 공적원조의 지원을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디지털기회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탈바꿈한 사실이 세계의 개도국에 주는 인상은 매우 강렬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 후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화에 성공한 국가다.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개도국이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에 성공한 모델로 발돋움한 사실이 주는 경이로움은 우리가 내부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선진국에선 드문 연수생 초청사업이 활발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농촌개발을 배울 수 있는 현장교육은 개도국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새마을운동은 여전히 중국 등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DOI 평가 연속 1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우리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우리의 책무 역시 더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위의 자리에 걸맞는 '디지털 ODA' 요청 역시 더 많아질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디지털 ODA'는 정보통신부의 주관 아래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이 주력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국제협력사업은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개도국 정보접근센터(IAC) 구축, 해외 IT 전문가 초청연수, 국제기구 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은 2006년 현재 57개국 1,650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20개국 175명, 2002년 27개국 206명, 2003년 42

(표 1)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현황(2001-2006)

지역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파견 팀수	총파견 인원	
		팀수	인원	팀수	인원	팀수	인원	팀수	인원	팀수	인원	팀수	인원			
아시아 (17)	네팔	3	8	1	4	4	15	3	12					11	39	
	동티모르					2	8	3	12	3	12			8	32	
	라오스	1	3	1	5	3	12	2	8	3	12	4	16	14	56	
	말레이시아	1	3	1	4							3	12	5	19	
	몽골	4	13	3	13			3	12	4	16	4	16	18	70	
	방글라데시	1	3	1	4	3	12	3	12	3	12	3	12	14	55	
	베트남	5	15	4	19	2	8	3	12	3	10	4	16	21	80	
	부탄											2	4	2	4	
	스리랑카			1	5	4	16	4	16	3	12	2	8	14	57	
	아프카니스탄					1	4							1	4	
	인도	3	9	1	5	2	8	3	12					9	34	
	인도네시아	5	14	3	13	2	8	4	16	4	16	7	28	25	95	
	중국	7	20	5	22	3	12	4	16	9	28	11	40	39	138	
	캄보디아	4	13	2	8	5	20	3	12	4	16	3	12	21	81	
	태국	7	21	3	14	2	8					2	8	14	51	
	파키스탄					3	12							3	12	
	필리핀	5	15	3	13	2	8	3	12	4	14	6	24	23	86	
소계	46	137	29	129	38	151	38	152	40	148	51	196	242	913		
유럽 (5)	루마니아					2	8	2	8	2	8	1	4	7	28	
	불가리아					3	12	3	12	3	12	1	4	10	40	
	체코					1	4							1	4	
	터키	1	2	2	10	3	12			3	12	1	4	10	40	
	폴란드					1	4	1	4	1	4			3	12	
	소계	1	2	2	10	10	40	6	24	9	36	3	12	31	124	
	러시아	2	6	1	5	1	4	2	8	4	12	3	10	13	45	
	아제르바이잔											1	4	1	4	
	우즈베키스탄	4	10	3	14	7	28	3	12	4	12	3	8	24	84	
	우크라이나	1	3	1	3	1	4	3	12	1	4			7	26	
CIS권 (7)	카자흐스탄	4	10	2	8	5	20	4	16	5	16	5	18	25	88	
	키르기스스탄	1	2	1	4	2	8	2	8	3	12	3	12	12	46	
	타지키스탄	1	2	1	4	3	11	3	12	3	12	3	12	14	53	
	소계	13	33	9	38	19	75	17	68	20	68	18	64	96	346	
	중 동 (2)	예멘			1	4									1	4
		요르단	1	3											1	3
		소계	1	3	1	4	0	0	0	0	0	0			2	7
도미니카				1	5	2	8			1	4			4	17	
과테말라										1	4	1	4	2	8	
멕시코						1	4					1	4	2	8	
브라질										2	8			2	8	
벨리즈						1	4							1	4	
볼리비아						1	4	1	4					2	8	
수리남				1	4									1	4	
중남미 (13)	아르헨티나					1	4			1	4			2	8	
	코스타리카					1	4							1	4	
	파나마					1	4	1	4	2	8			4	16	
	파라과이					1	4	1	4	1	4	1	4	4	16	
	칠레							1	4	1	4			2	8	
	페루			1	3			1	4	1	4			3	11	
	소계			3	12	9	36	5	20	10	40	3	12	30	120	
	나이지리아											1	4	1	4	
	모리셔스					1	4							1	4	
	모리타니			1	4									1	4	
	세네갈					1	4	1	4			1	4	3	12	
	소와질랜드					1	3							1	3	
	알제리			1	5	1	4	2	8	1	4	1	4	6	25	
아프리카 (13)	우간다					1	4							1	4	
	이집트					2	8	2	8	3	12	1	4	8	32	
	짐바브웨					1	4	1	4					2	8	
	카메룬					2	8							2	8	
	케냐					1	4	2	8	1	4			4	16	
	튀니지									1	4	1	4	2	8	
	탄자니아			1	4	0	0	1	4	1	4			3	12	
	소계			3	13	11	43	9	36	7	28	5	20	35	140	
총계	57 개국	61	175	47	206	87	345	75	300	86	320	80	304	436	1650	

개국 345명, 2004년 32개국 300명, 2005년 33개국 320명, 2006년 29개국 304명이다.

이들은 파견 지역에서 PC 및 인터넷 활용, OA 활용, PC 정비와 같은 IT 봉사활동은 물론, 한국의 IT 산업에 대한 홍보와 문화교류 활동 등을 통해 민간 친선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선진 IT 리더로서의 국가 브랜드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해당국에 파견되기 이전에 태권도, 탈춤, 사물놀이, 한국요리 등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분야를 학습해 출국함으로써 IT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도 알리는 친선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활동에 해당국 정부나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지난 2005년의 경우 라오스 부총리,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장·차관은 직접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도미니카에서는 봉사활동 기간 중 봉사단원들이 SISOFT 국제 심포지움에 직접 참가해 활동상을 널리 알렸다.

이들의 주된 교육 대상은 학생과 일반인, 주부 등이나 해당국 관료나 교수, 교사 등 전문직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활동은 해당국 교수나 교사를 통해 또 다른 학생들에게 IT 코리아의 인지도를 확산하는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

2) 개발도상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사랑의 PC' 보급 활동

인터넷청년봉사단 사업이 주로 IT 봉사활동에 치우쳐 있다면, 개도국 정보접근센터(IAC·Internet Access Plaza·현지 명칭은 인터넷 플라자) 구축 사업은 해당국에 직접 다목적 인터넷 플라자를 지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개 나라에 인터넷 플라자를 구축했는데, 그 내용은

(표 2)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현황 : 10개국 10개 센터 구축(06.11.23)

구축국가	구축지역	구축기관	개소일자
캄보디아	프놈펜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02. 11. 25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 경제대학	'03. 10. 16
베트남	하노이	정통신 교육훈련센터	'03. 11. 5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여성개발연합	'04. 3. 3
필리핀	마닐라	리핀 무역훈련센터	'04. 10. 15
불가리아	소피아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철도청 사무소	'04. 12. 20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 직업훈련원	'05. 5. 27
튀니지	튀니스	튀니스 과학단지	'05. 11. 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우정국	'06. 7. 4
나이지리아	아부자	나이지리아 기업기술센터	'06. 11. 14

다음 표와 같다.

특히 인터넷 플라자가 구축되는 장소는 해당국의 주요 관공서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지 확산과 관련한 이 시설의 효율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IAC는 IT 분야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센터로 활용되고 있고, 루마니아 IAC는 네덜란드 총리 방문시 정보화 현황 시찰 코스로 활용되는 한편, 국제 컨퍼런스 장소로도 쓰인다.

또한 필리핀 IAC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IT 교육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집트 IAC는 이집트 정부가 IT 관련 시설을 건립할 때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통부장관도 한국형 IAC를 벤치마킹한 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또한 불가리아 IAC는 수도 소피아 시내의 지하 아케이드에 위치해 매우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정보접근센터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총 552,162명이 인터넷 플라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9,849명, 2004년 118,651명, 2005년 255,047명, 2006년 상반기 158,615명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인터넷 플라자의 각종 기기 및 시설 등은 모두 한국산으로 이들 이용자들은 인터넷 플라자를 이용할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인지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중고PC를 수거해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국내의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다.

'사랑의 PC 보내기'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199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7월까지 10만여 대의 PC를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단체 등 국내 정보화 취약계층과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등 개도국에 지원했다.

이 사업 역시 동티모르의 구스망 대통령 등 각국의 지도자가 직접 나서 PC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호응이 높는데,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로 압수된 PC 19만여 대가 역시 이 사업을 통해 불우이웃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지원에 활용될 전망이다.

3)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사업은 개도국 CIO(정보 책임자)나 IT 정책 관련자, 혹은 IT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점에서

〈표 3〉 국가별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현황(2006.12.4)

지역	국 가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중남미 (18국)	파라과이			1				5	1	0	7	
	에라도르		3								3	
	콜롬비아	1	1		3	1					3	
	베네주엘라				2	3			2	1	8	
	코스타리카				5	3	9	3	4	3	27	
	파나마				1	13	6	3	4		27	
	바베이도스				1						1	
	도미니카					1			3	2	6	
	페루					1	1	3	3	3	11	
	브라질				8	2		3	5	3	21	
	칠레				7	2		6	3	3	21	
	멕시코				5	2	8	6	8	5	34	
	아르헨티나							1	2	0	3	
	엘살바도르						4	1	3	2	10	
	온두라스								2	0	2	
	니카라과								1	0	1	
	벨리즈								2	0	2	
	과테말라										3	
우루과이										1		
중동 (7국)	소계	1	4	1	30	17	40	29	42	33	197	
쿠웨이트	2							1			3	
이라크								17	2	0	19	
예멘								5	12	10	27	
시리아								1	2	2	5	
레바논								4	2	1	7	
사우디아라비아				6		8					115	
오만				3	1			1	1		6	
UAE										1	1	
소계	2	0	0	9	0	8	29	19	16		83	
북부 아프 리카 (4국)	모로코				9	2	5	6		2	24	
이집트				2	2	7	8	3	4		26	
알제리					6	7	2	3	2		20	
튀니지아								3	3	1	7	
소계	0	0	0	11	10	19	19	9	9		77	
가나			1								1	
짐바브웨	1										1	
카메룬		1	2								3	
남아프리카공화국	1										3	
아디오피아						1					2	
보츠와나						7					9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15국)	모리타니아				2						2	
수단								5	2		7	
탄자니아								2	0		2	
세네갈								3	3		3	
나이지리아								2	2		2	
모잠비크										1	1	
감비아										1	1	
잠비아										1	1	
코르티부아르										1	1	
소계	2	2	2	0	2	8	0	7	18		41	
러시아	5	1			6	1	2	2	0		17	
카자흐스탄	2	2	2	3	2	5	7	6	1		30	
키르기스스탄	2		2		3	4	4	3	1		19	
타지키스탄		1	3		1						5	
우즈베키스탄			2			7	5	6	7		27	
우크라이나	1				2					2	5	
투르크메니스탄					1						2	
그루지아			3								3	
아제르바이젠		1			5		1	1	3		11	
소계	7	3	2	0	8	9	2	11	15		119	
지역 국 가	World Bank									2	2	
	ITU									2	2	
지역 국 가 기 구	소계	0	0	0	0	0	4	0	0	0	4	
	베트남	8	25	27	39	17	30	30	28	13	217	
	중국	311	14	33	11	10	6	1	4	9	3	
	필리핀	6	10	8	10	13	19	20	8	10	104	
	몽고	5	6	8	19	9	12	8	13	6	86	
	태국	3	9	19	9	17	24	11	9	9	110	
	캄보디아		1	1	12	4	8	9	11	8	54	
	인도네시아	6	8	14	16	20	12	12	19	30	137	
	라오스	3	6	5	5	5	11	19	10	12	76	
	미얀마	5	6	3	5	2	6	5	10	3	45	
	브루나이	1	4					7	1	5	18	
	몰디브	1	2		2	3		2	2	1	13	
	미크로네시아	1									0	
	말레이시아	4	4	3	2	2	2	5	7	5	34	
	파푸아뉴기니	4	3	7	3	9	11	12	12	5	66	
	대만			2			1		0	0	3	
	인도	5	7	7	24	9	7	10	5	7	81	
	파키스탄	1		5	2	3	7	6	9	8	41	
	이란	5	7	8	4	5	2	9	4	4	48	
	싱가폴								2	1	3	
	양 (34국)	소계	4	5	4	3	4	9	2	4	4	39
	네팔	4	3	4	4	8	9	7	5	5	49	
	부탄	2	1	5	4	1	3	4	3	3	23	
	방글라데시	3	7	3	1		6	8	5	7	40	
	아프가니스탄						6	3	3	2	14	
	동티모르						8				8	
	마카오		1								0	
	통가	1	2	1	2		3	2	1	0	12	
	피지			1	2	2	2	1		1	9	
	쿠아일랜드			1	3	1					0	
	팔라우	3	2	3	1	3	1	1	1	1	15	
	나우루	2									0	
	사모아				3		2	1		0	6	
	호주						2	1		0	3	
소계	73	134	148	211	149	213	202	173	154	1,457		
헝가리					4	2		1	1	8		
아르메니아							1		0	1		
폴란드					1	9	4	5	3	22		
터키						1	2	1	3	7		
프랑스						1			0	1		
유럽 (10국)	루마니아	4	10	2		2	9	3	4	38		
체코							6	3	3	15		
불가리아					2	2	8	5	4	23		
리투아니아								2		2		
몰도바	2	2	3							7		
소계	6	12	5	2	9	36	20	18	16	124		
총계	인원합계	93	158	168	266	207	345	318	286	261	2,102	
	지원국가수	29국	34국	32국	36국	46국	49국	57국	69국	68국	99국	

주: 기타 미포함 인원수: 156명
 ('06 우즈베키스탄 교원초청연수 20명, '06 KOICA 위탁과정 몽골전자정부전문가과정 5명, 국가
 정보화전략전문가과정 14명): 19명, '06 말레이시아 MBA 특별과정: 21명, '06 태국 NECTEC 특
 별과정: 27명, '05 홍콩 스테디 방문단: 29명, '05 중국 청소년 방문단: 40명)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2006)

디지털 외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와서 선진 IT와 수 천 년 역사,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고 친한파, 혹은 지한파가 되어 돌아간 사람 가운데 해당국 정보통신 관련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나올 확률은 높다. 비록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뿌린 씨가 결국은 결실을 맺어 후일의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06년 12월 현재 해외 IT 전문가 초청연수 사업을 받은 개도국 인사들은 총 2,102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국가 수만 해도 97개국에 달한다. 이를 년도별,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표 3>과 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한류'는 지구상의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각 대륙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가 인지도 제고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처럼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인지도 조사결과는 초청연수 사업의 각 과정, 즉 CIO 과정, 전문가 과정, 모바일 과정, 정보보호 과정, 전자정부 SI 과정, 중남미고위급 과정 등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 IT능력에 대한 인지도는 교육 전에 7점 만점 기준으로 4.06점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6.29로 높아졌고, 한국 IT산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교육 전에는 3.89점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6.14로 높아졌다. 따라서 교육 전후로 IT 코리아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32.02% 개선되어, IT 코리아 인지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IT코리아 인지도 조사결과

과 정 명	한국 IT능력 인지도		한국 IT산업 인지도		교육 후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전	교육 후	한국 이미지 인지도
인지도	4.06	6.29	3.89	6.14	6.49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부자료(2006. 12. 7) *7점 만점 기준

III. 결론 : 한국형 ODA를 창출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거두고 있는 성과는 놀라울 정도다. 연간 5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국의 IT 선진성 및 IT 코리아 이미지 확산에 대한 기여도는 그 어느 사업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해외 IT 전문가 초청연수, 국제기구 협력 등 4가지 사업을 각기 개별적으로 방치하지 않고, 이를 한데 묶어 뛰어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지난 8월 31일 디지털기회포럼(DOF· Digital Opportunity Forum)의 창립이다.

디지털기회포럼(www.dof.or.kr)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1998년부터 실시한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KOIL· Korea IT Learning Program)'를 통해 선진 IT를 배우고 간 99개 개발도상국 정부 2,102 명의 CIO(정보책임자) 및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조직이다.

국제적인 IT 관련 포럼은 많이 있지만, 개도국을 총망라하는 정보격차해소 전문가들만의 모임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를 위해 그동안 각 국가별로 초청연수자 출신으로 구성된 동창모임을 열고 이를 네트워크(KADO 월드넷)화 해왔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보접근센터 개소식(2006. 7. 4)에 IT 초청연수생을 초청하고, 개소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이런 행사 날짜가 해당국 인터넷 청년봉사단의 활동 기간과 겹치면 봉사단원이나 교육생들을 함께 불러 일종의 'IT 교류 및 친선의 모임'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또한 IT 초청연수를 받고 돌아간 연수생들을 총망라해 사 진과 함께 이름, 나이, 전공, 근무처, 연락처 등을 자세히 기술한 수첩을 제작함으로써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각 나라별 교류는 물론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었다.

특히 디지털기회포럼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목적의 개도국 전문가 포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 포럼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수준으로까지 격상시켜,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및 실천 전략에 관한 한 한국이 가장 확실한 노하우를 가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창립총회에서도 DOP(Digital Opportunity Platform)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U와 공동으로 디지털기회지수의 지속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국의 앞선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ODA를 개

발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IT 지원정책은 정말 보배와도 같은 것이다. 특히 지원 배경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강대국이나 선진국들의 상업적 지원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디지털 ODA는 정말 감동을 주는 '휴먼 터치'의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대다수 개도국들은 정보화에 대한 갈망으로 목말라하고 있다. 정보 격차가 곧 지식 격차요, 지식 격차가 곧 경쟁력 격차이며, 경쟁력 격차가 빈부 격차 및 건강(수명) 격차로 이어지는 콜레임을 잘 알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정보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 나라들에게 얼마든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이야말로 식민지 지배, 전쟁, 극단적 빈곤 등 개도국의 일반적 경험을 모두 겪어서 어떤 나라보다 개도국의 고충과 '가려운 곳'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보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모두 알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각 나라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만들어 도울 수 있다. 원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한국형 ODA'의 전범(典範)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몇 나라만이 라도 정보화의 성공 경우를 만들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ODA는 국가의 지위 및 이미지를 높이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최고의 외교 전략이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장기적 투자이기도 하다. 긴 안목의 미래지향적 외교전략으로서 현재의 디지털 ODA를 더욱 확대하고 투자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현재의 디지털 ODA를 더욱 특화하고 앞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설치 및 관련법의 정비와 제정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전담 기관이나 관련 법 등의 미비는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과 효과의 감소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각각 대외원조법, 국제개발법 등을 제정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법이나 헌장 형태로 국가 원조의 비전을 정립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경제협력정책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정책 조율이나 지원 창구 일원화에 있어서 한계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일 년에 몇 차례 열리는 위원회로는 정책 조율에 한계가 있어 네덜란드처럼 독립된 원조청이 대외원조를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T 선도국으로서의 장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원조 전담기구, 법 체계, 지원 프로그램이 제정되어야만 디지털 ODA 및 디지털 외교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지원정책, 디지털 ODA는 어쩌면 달랠나 원유보다, 천연가스보다, 우라늄보다 훨씬 귀중한 것이다. 후자의 것들이 배고픈 자에게 직접 고기를 주는 것이 라면, 후자의 것은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비전 2030 민간작업단(2006), 비전2030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보고서
- 엘빈 토플러(2006), 부의 미래, 창림출판
- 오마에 겐이치(2006), 부의 위기, 국일증권출판부
- 재정경제부(200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 제출 통계자료
- 잭 폴드스미스 · 팀 우(2006), 인터넷 권력전쟁, NEW RUN
- 정보통신부 미래전략위원회(2006), ACE IT 전략보고서
- 조용준(2006), 디지털 한류의 푸른 지평,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조정문(2005), 정보사회정상회의(WSSIS)와 정보격차해소,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하영선 · 김상배 엮음(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을유문화사

학 령



- 1984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학사)
- 1988년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과 졸업 (학사)
- 1991년 미국 텍사스A&M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
- 1994년 미국 텍사스A&M대 (사회학박사)
- 1999년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기획본부 본부장
- 2002년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보사회학과 교수, 학과장
- 2001년 ~ 2002년 숭실대 사이버연구센터 센터장
- 2001년 정보통신부 정책평가 및 심사위원
- 2001년 국무총리실 정보화 평가위원

손 연 기

- 2001년 ~ 2002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 2002년 한국정보문화센터 소장
- 2003년 ~ 2005년 제25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홍보분과위원
- 2003년 ~ 2006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1대 원장
- 2005년 ~ 2006년 문화관광부 "2010게임산업 전략위원회" 위원
- 2001년 ~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 2003년 ~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위원
- 2005년 ~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2006년 ~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2대 원장
- 2007년 ~ 현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사
- 2007년 ~ 현재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